



■ 콜롬비아의 굿 뉴스

박 정 훈

“우리 방문이 콜롬비아에서 들려오는 굿 뉴스이기를 바랍니다.” 2008년 10월 18일 저녁 6시,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는 콜롬비아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 무용단이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시각 무용단보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몸의 학교 교장 알바로 레스트레포 선생이었다. 그는 몸의 학교를 간략히 소개한 뒤 콜롬비아가 늘 우울한 소식의 발신지였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실제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질 법한 온갖 비극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나라이다. 하지만 작년 예술의 전당에서 몸의 학교 무용단의 「몸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를 감상한 한국인들은 그 나라의 비극도 그 나라 사람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 상상력의 요람이 카르타헤나의 예술교육기관인 ‘몸의 학교’라는 것도 알았다.

콜롬비아 몸의 학교는 그간 한국 언론을 통해 간간히 소개되었다. 2007년 한국방송(KBS)은 특별다큐멘터리 〈예술의 반란〉



‘몸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의 한 장면

시리즈의 제2편으로 몸의 학교 사례를 방영하였다. 전쟁과 빈곤,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자라는 빈민 가정의 소년들이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부산 청소년들은 직접 카르타헤나까지 찾아가 몸의 학교 아이들을 한국에 초청하기도 했다.

2008년에 몸의 학교 무용단이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여름에는 부산 청소년들의 초청에 응해 부산을 방문했고, 가을에는 서울세계무용축제의 초청으로 서울과 안산의 무대에 올라 콜롬비아 현실을 다루는 강렬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제 더 이상 몸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몸의 학교 무용단의 작품도 한국인들에게 낯설지 않다. 빈민가 소년들의 입지전적 성장드라마도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소년들의 잠재력을 예술적 표현력으로 발전시킨 이 학교 특유의 혁신적 예술기반 교육은 제

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유년기를 잃어버린 아이들

작년 한국 방문에 동행한 몸의 학교 무용단의 매니저 알렉스는 몸의 학교에서 춤을 배우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동성애자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지금은 서서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알렉스의 발언은 콜롬비아 청소년 사회에서 몸의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준다. 몸의 학교는 그 나라 청소년 사회가 처한 현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편견과도 싸우고 있다.

그 역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비극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고려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비극적인 일들의 지속성, 빈도의 순위를 매긴다면 세계랭킹 상위권에 오를 국가이다. 반세기 가깝게 지속되어 온 내전으로 콜롬비아는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국가로 변했다. 또, 소득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격차가 32배를 상회하는 나라로 남미대륙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한 백인들이 혼혈인(58%)과 아프리카계(21%)를 지배하는 ‘은폐된 인종차별’의 나라이며 국민의 약 45%가 빈곤에 허덕이는 국가이다.

몸의 학교의 탄생지 카르타헤나 시에서 콜롬비아의 위기는 더욱 날카롭게 표출된다. 인구 100만 가운데 7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빈부의 심각한 격차는 시각적으로도 현저하다. 유명한 문화관광도시이자 컨벤션 도시인 카르타헤나의 한편에는 거대한 부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도시 외곽은

대규모 전쟁난민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빈민지역이 떠올라 이루고 있다. 식민지시대 흑인노예 무역항이었던 이 도시에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에 시달린다. 몸의 학교의 공동 교장 들뢰뱅 선생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등장하면 이 도시의 빈민들이 모두 반란에 가담할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까지 했다.

콜롬비아 사회의 여러 문제는 사회 약자인 청소년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8천 명의 소년소녀가 게릴라 병사가 되었고, 정부군에 의해 정보원이나 작전의 길라잡이 노릇을 수행해 왔다. 내전이 낳은 치안 부재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란 마약조직들은 콜롬비아를 세계 최대 코카 생산국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청소년들도 마약조직에 가담시키거나 싸구려 마약의 소비자로 전락시켰다. 심지어 가족마저 폭력의 안전지대이기는커녕 폭력의 온상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학대에 시달리거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때론 거리에 버려지기도 한다.

그러니 콜롬비아의 중고교 취학률이 54.3%에 불과하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 취학 연령의 청소년 가운데 과반수 가량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몸의 학교 교장인 알바로 레스트레포(Alvaro Restrepo)가 콜롬비아 아이들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1997년 몸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콜롬비아의 현대무용가 알바로 레스트레포와 프랑스 출



몸의 학교를 이끌고 있는 알바로 레스트레포(오른쪽)와 마리 프랑스 들뢰뱅.

신 무용교육자 마리 프랑스 들뢰뱅(Marie France Delieuvin) 선생이 합심했고 콜롬비아 지식인들이 동참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몸의 학교는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드문 혁신적 예술기반교육의 사례를 발전시켜왔다.

콜롬비아적인 예술기반 교육의 사례

몸의 학교 사례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학교의 독특한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이다. 몸의 학교의 교육 철학을 정립해온 레스트레포 교장 선생은 콜롬비아 현실이 인간의 몸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이끌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콜롬비아의 국가적 위기가 인간 윤리의 위기를 낳고 그것이 몸의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가치관의 피비린내 나는 위기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인간의 몸은 그 신성한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매일 우리는 고문당하고 절단당하고 살해당하는 몸들을 보고 있다. 영혼을 가진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몸의 물질적인 면만을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몸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물건으로 전락했고 마침내 일회용으로 버려지고 제거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콜롬비아 문화부 통합신체교육센터 몸의 학교)

이 같은 몸의 위기에 맞서는 하나의 대응책으로 몸의 학교를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몸에서 발원한 예술과 학문, 신체기술 등 인류의 유산을 통합해서 교육할 때 몸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몸의 학교’라는 학교명, ‘통합신체교육’이

라는 교육철학이 비롯되었다.

몸의 학교가 실천해 온 교육방법론도 주목할 만하다. 가령, 2008년에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빈민 가정의 아동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예술교육사업은 몸의 학교가 그간 개발해온 교육방법론의 최신판을 적용하였다. 1년간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술 감수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7개의 주제별 모듈과 3개의 방법론적 축으로 구성된 참신한 교육방법론을 실천하였다.

7개의 모듈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해부학과 생리학, 시민형성, 폭력, 섹슈얼리티, 영양, 중독, 환경 등으로 모두 인간의 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주제들이면서 콜롬비아 청소년들의 일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폭력’과 ‘중독’ 같은 주제들은 콜롬비아 사회의 핵심적 문제인 내전과 마약과 관계가 깊다.

3개의 방법론 축이란 각 주제별 모듈에서 배우게 될 신체훈련(다양한 신체기술), 예술언어(예술), 신체관리(학문) 등 세 가지 교육영역을 뜻한다. 이를테면, 폭력이란 모듈은 신체조작 연습을 통해 몸이 폭력을 평화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신체훈련), 음악과 타악기 공부로 몸으로 악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며(예술언어), 폭력의 여러 형태를 파악하고 가족이 평화건설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운다(학문). 또한 각 주제별 모듈마다 3개의 방법론축의 조합이 변화한다. 예컨대, ‘시민형성’이란 주제별 모듈에서는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의 관계를 신체조작을 통해 배우고(신체훈련), 문학을 통해 자신에게 타자로 관계를 확장해가는 법을 배우며(예술언어), 개인 고유의 정체성, 권리, 가치관에 대해서 학습한다(학문). 즉 몸의 학교의 교육방법론은 전통교육과정에서 별도의 과목들로 구획되었던 것을 인간의 몸을 중심축으로 삼아 통합시킨 몸의 학교 판 통합교과과정이다.

몸의 학교가 선보인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은 두 가지 의미에서 콜롬비아 전통교육을 혁신시켰다. 먼저 몸의 학교는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공교육에 충격을 주었다. 콜롬비아는 19세기 초 독립 이래 한 번도 보편적인 공교육 제도가 뿌리내린 적이 없는 나라라 할 수 있다. 늘 다수의 청소년들이 취학하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나머지는 교육의 기회를 가졌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훈육되었다. 몸의 학교는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과 전통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 양자를 대상으로 혁신된 공교육의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전통교육에서는 액세서리로 간주되어 온 예술과목을 학교교육의 중심축으로 변화시켰다. 예술이 교육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예술교육 자체도 변화돼야 했다. 그 결과 예술교육은 생활과 유리된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의미심장한 수단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몸의 학교의 교육과정도 독특하다. 몸의 학교의 교육과정은 예술적 시민을 양성하는 ‘춤을 통한 교육’(Educación con la danza)과 예술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춤을 위한 교육’(Educación para la danza)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2년 간 몸의 학교는 약 2천 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춤을 통한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작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은 ‘몸의 학교’는 빈민가의 일반 아동 1,200명을 대상으로 야심찬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는 예술교육이 예술가 양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시민도 길러내 사회의 변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의 산물이었다.

또한, 몸의 학교는 춤에 대한 굳은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들에게는 ‘춤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이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연령에 해당하는 예비과정 1년, 중급과정 6년, 고급과정 3



몸의 학교 무용단과 한국의 청소년들의 만남(2008년 안산)

년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한 10여 명의 전문 무용수들이 몸의 학교 무용단을 구성하고 있고, 이들은 2006년 콜롬비아 문화부의 지원으로 안티오키아대학 예술학부의 무용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졸업 후 이들은 몸의 학교에서 교사이자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5년, 콜롬비아 1년

몸의 학교의 공동 교장인 들뢰뱅 선생은 “프랑스에서 5년 걸리던 일을 콜롬비아에선 1년 만에 달성했다”고 몸의 학교 경험을 요약했다. 프랑스 앙제 국립현대무용학교 교장이었던 그녀의 발언은 교육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프랑스 교육계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들뢰뱅 선생은 몸의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

발전의 기회가 그간 완벽하게 방치되고 있던 콜롬비아 청소년들의 잠재적 재능을 급속도로 계발시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몸의 학교는 콜롬비아 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2003년 콜롬비아 문화부는 몸의 학교에 제1회 최우수문화기관상을 수여했고, 2006년 카르타헤나 시교육청은 몸의 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했으며 신축교사를 지을 부지도 제공했다. 개교당시만 해도 카르타헤나의 사설 방과 후 학교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몸의 학교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간의 실험을 점검하고 몸의 학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레스트레포 선생은 몸의 학교의 미래를 베네수엘라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도(EI Sistema Nacional de Orquestas Juveniles e Infantiles de Venezuela)에서 찾고자 한다. 흔히 엘시스테마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1975년 창단된 국립청년오케스트라가 전개한 오케스트라운동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150개의 청년오케스트라와 70개의 소년오케스트라를 거느리고 있는 국가음악복지제도로 발전했다. 베네수엘라가 전국의 빈민아이들에게 무상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시키고 있듯이, 레스트레포 선생은 몸의 학교와 같은 춤 학교를 콜롬비아 전역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반면, 프랑스 출신 무용교육가 들뢰뱅 선생은 몸의 학교가 지속적으로 예술교육을 혁신시키는 세계예술교육의 아방가르드가 되기를 바란다.

몸의 학교 미래에 대한 두 창립자의 견해는 다르다. 하지만 그것은 몸의 학교의 미래가 보여줄 양립 가능한 두 개의 얼굴일지 모른다. 두 교장 선생은 전례 없는 몸의 학교 실험을 일종의 모험이라고 표현한다. 그 모험에 한국의 예술가들도 동참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의 반수 가량이 사교육에서 배제되고

있고(고교생 사교육참가율 55.5%),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예술교육이 서민 청소년들의 예정된 삶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롯이 한국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박정훈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역서로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 『마르코스』, 『게릴라의 전설을 넘어』 등이 있다.
